

私立大學의 公益性

安 基 成

(高麗大 教育學科)

1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 이것이 문제로다”하고 독백하였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大學教育의 ‘公益性’에 관해 말하려면 같은 독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대학교육을 유익하다고 말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하느냐 ;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대학이 있는 고장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학 때문에 어떤 덕을 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것이든 덕을 보았다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 그것도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있는 것같지 않다. 돌과 화염병을 던져대는 군상들의 집거지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저항의 본거지로 이해하려 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공익에 기여하기보다는 해독을 뿜어대는 공해의 산실로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많을 것이다. 대학에 가까운 곳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일수록 대학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자들이 많다. 학교 주변에 살면서 늘 들팔매와 화염병 그리고 최루탄에 시달려 온 사람들이라면 대학이 유익하다고만 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학 주변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대학생들의 집단적 시위로 길이 막혀 장시간 길에 잡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대학의 격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아 본 사람들, 기성인은 보수적이라는 통념 때문에 그의 깊은 경륜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낡고 무능한 자로 매도돼 본 사람들 등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학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된 대학의 병폐적 症候群은 적지 않다. 요책이 없는 입학 시험 제도가 빛고 있는 사회적 물의, 반드시 정당한 비판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매도되는 대학 재단의 비리, 대학 졸업자의 사회에의 부적응, 기업에서 재훈련까지 해야 하는 기준 미달의 대학 졸업자의 능력 등 대학은 낭비와 무모성의 증후군으로 짝 차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대학교육이 사회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코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햄릿의 독백처럼 끝낼 수만은 없게 현재의 한국 대학, 그중에서도 특히 사립대학은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병리적 증후군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들은 각 개인과 그가 속하는 사회 공동체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대학들이 이제 존재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학들은 그 거대화된 규모의 시설과 조직 그리고 인원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극심한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세력화된 내부 이질 집단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를 연출하고 있다. 이를 방임·좌시하고 있다면, 이 대학들은 아사나 갈등으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뻔하다. 대학은 자멸해도 좋을 만큼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무가치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일까? 이제부터 그의 공익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2

진정 大學教育은 사회 공동체에 이로운 이른바 公益性을 가진 것이라고 해도 좋은 것인가? 더구나 사립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하여 공익성이 있다고 강조해야 되는 여기서, 정말 대학은 사회 공동체나 그 성원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인가?

앞에서 열거한 대학의 이롭지 못한 증후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교육이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꼭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단호히 말할 수 있다. 이 땅에 대학이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보라. 그런 곳에는 암흑과 침체가 있을 뿐이다. 어떤 문제든 방치된 채 어떤 해결도 구할 수가 없고, 어떤 새로운 발상이나 탁견들이 창조되지 않은 어둠만이 암울하게 덮여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 사회는 화염병이 날고 최루탄이 터지는 저항의 땅보다도 더 크게 이롭지 못한 황폐한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주는 이익 또한 사회는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교육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유익한 존재이다.

교육은 원래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사회의 통합과 영속을 위하여 있다. 대학교육은 대학이 교육 기관의 최상의 단계인 것 만큼 최상 수준의 교육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게 하고, 사회에 대하여서는 최상의 수준 높은 사회 통합과 영속을 위하여 공헌하게 되는 것이

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의 몸가짐이 대학에서 닦여진 것이라는 것을 찾아내기가 힘들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이해 관계 때문에 다투다가도 확실한 정보와 고매한 지식 위에 세워진 공통 목표에는 힘을 합쳐 왔다. 대학은 이렇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해 내는 곳이다. 가치와 규범 등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통합 또한 교육으로 다져지는 것이고 대학은 바로 이 교육의 장이다. 대학은 교수와 연구 그리고 사회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회에 대학이 있게 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며, 그런 까닭에 대학은 그것이 필요한 것만큼 유익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학은 그것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공립이라 해서 더욱 유익하고 사립이라 하여 그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다. 양자 사이에는 그 설립의 주체가 다를 뿐 대학 그 자체가 갖는 유익한 기능은 다 같다. 그러므로 사립대학이라 하여 유익하지 않은 존재라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현금 이 땅의 교육 정책 집행자들은 사립대학을 공립의 그것과 구분하여 왔다. 대학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이들 사립대학을 백안시 하고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운영자들에 대하여서는 마치 상습적인 범죄자들처럼 엄격한 감시하에 두기까지 했다. 이를 공립과 비교하면 매우 차별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공립대학은 풍요를 누리는 대신 사립대학은 모든 자원의 고갈과 억압에 의한 결식으로 枯死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방지하면 이 땅의 사립대학들은 이제 그의 생존을 이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땅의 대학은 수에 있어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도별로 세워진 각 10여 개의 공립 교원 양성 대학과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의 대학 수는 80개가 넘어 7할을 훨씬 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대학교육은 사립대학을 설립한 사사로운 사람들의 헌신에 의하여 거의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이 이 사회에 이익을 주었다면 이.

사사로운 사립대학에 의하여 주어졌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땅에서의 대학의 사회적 기여는 바로 이 사립대학들에 의한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 땅의 대학들이 자원의 고갈과 억압 때문에 그 존재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 대학들은 사회의 통합과 개인의 성장·발달에만 기여하지 않는다. 그밖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196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한 것도 대학이고, 격돌하는 국제 사회에서 이 땅의 독립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게 한 것도 대학이다. 아직 민주화가 멀고도 험한 길 가운데 있어 적지않은 사람들이 불만을 달하지마는 그래도 이만한 정치 발전을 이룩한 것도 대학 때문이다. 격심한 계급주의자들의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분배가 가능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교육이 이룩한 성과인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도 사립대학이 공립대학보다 그 수에 있어서 압도하고 있는 한, 사립대학들이 이룩한 공헌이 더 많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학들이 자원의 고갈과 힘의 억압으로 이제 질식·고사해 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얻는 이익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들 이 땅의 사립대학들이 실제 역사를 통하여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3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은 이 땅의 근대화의 여명기에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기여했고, 굴욕적인 식민지 체제하에서는 국권 회복의 열과 힘을 심고 키웠다. 그리고 건국 초기에는 국론 통일에 이바지하고, 국란에 처해서는 국토 방위의 역군을 키웠다. 공업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훈련·개발하여 그것의 진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대략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이제부터 시대에 따라 사립대학들이 어떠한 사회적 기여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905년 5월 이 땅의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인 '보성전문학교'가 문을 열었다. 근대 학교라고는 10년 전인 1895년에 설립된 소학교와 사범학교가 있었고, 1899년에 창립을 본 공립 중학교가 있었을 뿐, 대학이라고는 공립조차 없었던 시기에 지금의 대학이랄 수 있는 사립 '보성전문학교'가 유일하게 설립·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학교가 설립되던 같은 해 12월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되어 또하나의 사립 고등교육 기관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907년 3월에는 또 다른 사립 교육 기관이 '숭실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다. 이 시기는 구한국의 종말을 장식하는 시기로 정치적으로는 침략적인 외세 앞에 국권이 참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급박한 시대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서구 문명이 우리 문화에 대한 충격 요소로 등장하여 이를 수용해야 하는 작업이 추진되던 때였다. 이때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나라를 건지고 새로운 문명에 접해 이를 수용해야 하는 임무가 이들 사립대학에 주어졌던 것이다. 이 시기의 사립대학들은 바로 그들의 미숙성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다.

1910년 이 나라가 침략적인 외세 앞에 국권을 지키는 데 실패했던 암울한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도 이들 사립대학들은 '교육입국'의 가치를 들고 국권 회복을 위한 인재 양성에 철저하였다. 1917년부터 좀 뒤늦게 시작한 '연희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등의 사립 교육 기관들도 이에 참여하여 이러한 목적에 헌신하였다. 이들 대학들은 이를 거쳐 간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독립된 나라의 동량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몸 익히게 하였다. 이 무렵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등의 고등교육 기관이 따로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 기관들은 침략 세력이 직접 운영한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사립의 그것보다 민족 의식을 일깨우고 이 땅에 헌신하게 하는 교육을 펴기에는 제약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문을 열 때까지는 이들 사립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이 땅의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영역의 고급 인력 양성을 전담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비단 경성제국

대학이 정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우 한정된 한국인만을 수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다수의 인재 양성은 사립대학에 의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침략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리되었던 관영 기관으로서의 경성제국대학은 그 설립 목적이 식민지 지도자를 배양하는 것이었으므로 민족의 독립과 국권 회복에는 그다지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시대에 사립대학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땅에 애정을 갖기란 쉽지 않았다. 이때의 사립이 아닌 대학들은 대체로 착취와 억압을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비록 높은 수준의 학문이 이곳에서 교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애정의 결핍으로 침략 세력에 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대에 있어서의 사립대학의 민족적 공헌은 보다 돋보이는 것이다. 이들 대학 출신자들은 경제계에서는 민족 산업 발흥의 주역으로, 언론계에서는 민족지의 주역으로, 법조계에서는 민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역으로, 교육계에서는 민족교육의 주역으로 각각 헌신하였다.

1945년 국가 재건의 시기에 처해서도 사립대학은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적지않게 공적을 쌓았다. 사립대학들은 국립대학이 여기 저기 산재한 대학들을 연합하는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하게 됨으로써 '국대안 반대'의 물의를 빚는 동안 이 나라의 이데올로기 선택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여 독립된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국가 재건의 시기인 이 시대의 대학은 아직 정돈되지 않은 당시의 사회상으로서의 그 어느 곳보다 선진 사회이었으므로 교육과 연구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등 사회의 사건들과 크게 맞물려 있었다. 그 때문에 대학들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컸던 것이다. 대학은 그것이 사립이든 사립이 아니든간에 사회와 맞물려 있는 만큼 사회에 끼친 바 영향이 컸던 것이다. 정부 수립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현상은 이들 대학에 의한 선택이 적지 않았다고 하여도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니다.

이후 우리의 현대사를 통하여 줄곧 대학은 학문과 문화 그리고 과학을 유지·발전하는 데 몸바쳤으며, 사회를 개혁하는 데도 앞장 섰다. 민

족 상잔의 6·25 동란 중에서도 꾸준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국토 방위에도 앞장 섰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4·19라는 기록을 남겼다. 때로는 사회의 해독으로도 이해되지만 사회 개혁은 아직도 대학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이후 이 땅에 산업화를 촉진·가능하게 한 것도 대학이다.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배를 요구하게끔 한 것도 대학이 이룩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이를 주도할 훈련된 인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과에 대한 공헌을 대학 중에서 굳이 사립대학에 돌리는 것은 이 대학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수에 있어서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하나 없이 굳건히 사립대학 스스로가 역경을 딛고 세운 수훈이라는 점에서 이 대학들의 사회적 공헌은 값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근대사를 통하여 이 땅의 사립대학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까지 논의한 이 정도의 논거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4

이제까지 사립대학에 대하여 논거의 초점을 맞추고 이의 사회적 기여를 부각시켜 왔으나, 사실 대학을 말하면서 사립과 그렇지 않은 것을 2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의도는 정당한 것이 못된다. 이러한 이분법에 따라 다른 나라의 대학을 이해하려면 상당한 의미의 혼돈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외국에서 대학의 설립자가私人이었다는 이유로 우리와 같이 사사로운 재원으로만 운영된다고 믿었다가 당황하는 때가 많다. 또 설립자가 公人이라는 것 때문에 사립이 아니라고 믿고 정부의 재원으로만 운영된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에서 흔하다. 그곳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 같은 대학 안에

서도 어떤 일부의 학과나 단과대학은 정부의 공비로 운영되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의 그것들은 사적인 재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나라에서는 사립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2분법적 대학 인식은 걸맞지 않는다. 다만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회에 유익한 영역이면 그 설립자가 사인이든 공인이든간에 공비에 의한 지원이 있게 되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유럽의 대학에 있어서도 공립과 사립의 구분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유럽 지역의 오래된 대학들은 최초에는 사립이 아닌 것이 거의 없다. 교회가 관리해 오던 학교가 아니면, 도제 제도에 발단을 둔 학교가 태반을 이룬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들 대학들은 그 설립자가 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라의 지원 한 푼 없이 경영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사립과 사립이 아닌 것의 구분은 우리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모두가 국립이라고 해야 옳다.

사회주의 국가들일수록 이들 나라에서는 사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조차 않는다. 모든 것을 공영을 원칙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사회주의 국가의 존립 그 자체가 이들 교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과 이념과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 국가가 대학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모든 것에 유사성이 많은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슷한 예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대학들은 우리와 같이 사립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은 있으나, 사립이라 하여 나라의 지원이 없다고 믿어서는 착각에 속한다. 적지 않은 정부의 지원이 사립이 아닌 대학에만은 못하다 하더라도 대학들이 도산되지 않도록 젖줄을 잇고 있다. 굳이 이 땅에서 사립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 하려면 학생의 등록금이 비싼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은 그 설립자가 사적인 사람이나 단체라는 것 때문에 오랜 역사를 통한 사회적 기여와 현실 사회 운영에 없

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이 아닌 대학과 구분되어 특히 재정적 지원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이들 대학이 제 기능을 해내려면 사람과 시설을 포함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태부족인 한정된 재원에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대학에서 사립과 사립이 아닌 것의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들 사립대학들은 계속하여 영세화로 쪼달음질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들 대학이 가난하게 된다는 차원에서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이 대학들이 보여준 사회적 공익을 종전처럼 얻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보다 큰 두려움과 걱정을 갖는 것이다. 비단 대학교육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에서 우리가 사립과 사립이 아닌 것에 반드시 차별을 두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장래를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립과 사립이 아닌 것에 대하여 차별을 두는 2분법에 관하여 재고할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5

“대학이 정말 유익하다고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독백을 해야 하는 오늘의 대학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大學의 公益性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이 설사 소란스러운 공해의 산실이라 하여도 이러한 대학이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홍위병의 난동으로 대학을 폐쇄한 중국이 문명을 수십 년 뒷걸음치게 한 경험에서도 분명하다.

대학은 그것이 사립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 봉사를 통하여 개인의 성장·발달과 사회의 통일과 영속에 기여한다. 사립이라 하여 사회의 기여가 덜하고 사립이 아니라 하여 더하다는 법은 없다. 실제 이 땅은 그의 운명과 발전을 처음부터 사립의 대학들에 의존하여 왔고, 지금도 수에 있어 압도하는 사립 대학들에 여전히 그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입장

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들 사립대학들은 이 땅의 운명을 걸머지고 헤쳐 나가기에는 재원의 고갈과 외압으로 너무나도 지쳐 있다. 어쩌면 枯死 직전에 있다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집요한 대학외의 정치 세력에 의하여 대학은 질서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 대하여 교란까지 받고 있다. 대학이 이제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는가가 의심되기까지 한다. 만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땅의 사립대학들이 제 기능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 사회 또한 같은 운명을 걸게 될 것이다. 대학교육이 없는 곳에 성숙한 국민을 어떻게 찾아 볼 수 있으며, 통일된 국민 의사를 또한 어디서 얻어 낼 수 있겠는가? 문화의 영속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새로운 창조는 더욱 더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황폐하고 몰락된 사회가 예견될 뿐이다.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것의 이분법적 대학

관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분법 때문에 대학을 차별하여 고사 직전의 대학들을 방임해 버린다면 이 사회는 자신의 슬픈 운명을 자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은 바로 이 사립대학들에 캄플 주사를 줄 때이다. 이는 이들 사립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회생과 번영을 위해서이다. 이들 대학들이 주는 공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천길 만길의 퇴락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대학은 유익한 것이다. 개인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다. 대학의 공익성을 새삼스럽게 이처럼 설명하는 것부터가 유치한 작업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햄릿의 독백에서 깨어나자.

대학이 죽으면 이 사회도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만 한다. *